



즉시 배포용: 2023년 6월 20일

KATHY HOCHUL 주지사

**HOCHUL 주지사, 타이타닉 관광용 잠수함 탐색 및 구조 작전에서 뉴욕 항공
주방위군이 미 해안경비대를 지원한다고 발표**

제106구조비행단, 6월 19일 월요일 HC-130J 콰이어 콕 탐색 및 구조기 투입

Kathy Hochul 주지사는 오늘 뉴욕주 방위군 소속 제106구조비행단이 타이타닉호 잔해를 탐사하던 중 실종된 잠수정을 찾기 위한 미국 해안경비대의 탐색 및 구조 작업을 지원하고 있다고 발표했습니다. 롱아일랜드 웨스트햄튼 비치에 있는 F.S. Gabreski 항공 방위군 기지에 주둔하고 있는 제106연대는 미국 내 3개 방위군 탐색 및 구조 부대 중 하나이자 동부 해안에 기반을 둔 유일한 부대입니다. 제106연대는 고정익 탐색 및 구조 항공기와 구조 헬리콥터를 운용하며 바다와 육지에서 사람들을 구조하도록 훈련된 낙하산 구조 요원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Hochul 주지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뉴욕주 방위군의 군인들은 항상 도움의 손길을 내밀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이번 탐색 및 구조 작전에서 미국 해안경비대를 지원하기 위해 노력한 제106구조비행단 대원들에게 찬사를 보냅니다."

6월 19일 월요일, 제106구조비행단은 해안경비대의 요청에 따라 오후 3시 18분에 HC-130J 콰이어 콕 탐색 및 구조기를 띄웠습니다. 낙하산 구조 요원을 포함하여 13명의 공군이 탑승했습니다. 이 항공기는 대서양으로 900마일을 날아가 전방 감시 적외선 레이더와 탑재 관측기를 사용하여 지정된 지역을 수색했습니다. 비행기는 6월 20일 오전 2시에 기지로 돌아왔습니다. 비행단은 오늘 오후에 다시 수색을 지원해 달라는 요청을 받았으며 정오 무렵에 동일한 임무를 수행하기 위해 HC-130J 한 대를 띄울 예정입니다.

Ray Shields 소장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해안경비대가 뉴욕주 방위군 제106구조비행단에 이번 수색 임무에 도움을 요청했을 때 공군 병사들은 과거와 마찬가지로 신속하고 전문적으로 대응했습니다. 우리 대원들은 필요할 때 언제든지 대응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2022년 5월 20일, 제106구조비행단은 항공기를 띄워 대서양 상공 1,200마일을 비행하여 범선 승무원이 사고로 화상을 입은 선원을 치료할 수 있도록 의료 보급품을

투하했습니다. 2017년 4월 24일, 제106구조비행단의 낙하산 구조 요원들이 밤에 해안에서 1,500마일 떨어진 대서양으로 뛰어들어 화재로 중상을 입은 M/V Tamar 호에 탑승한 선원 2명을 대상으로 응급 수술을 했습니다. 공군 대원들은 두 선원의 생명을 구한 후 배가 아조레스 제도에서 구조 헬기의 사정거리에 도달할 때까지 이틀 동안 치료했습니다.

###

다음 웹 사이트에 더 많은 뉴스가 있습니다: www.governor.ny.gov
뉴욕주 | Executive Chamber | press.office@exec.ny.gov | 518.474.8418